

‘참’의 감탄사와 담화표지 의미 기능*

구종남**

|| 차례 ||

- I. 문제의 제기
- II. ‘참’의 문법 범주와 의미적 관련성
- III. 두 가지 감탄사 ‘참’과 그 의미
- IV. 담화표지 ‘참’의 의미 기능
- V.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첫째, 감정/느낌 표현과 관련 있는 ‘참’의 감탄사와 담화표지로서의 의미 기능을 밝히는 한편, 이들 용법과 의미 기능은 부사 ‘참’의 기본적인 어휘 의미에 의해 원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이고, 둘째, ‘참’은 감정/느낌 표현과는 무관하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음을 나타내는 감탄사적 용법과 담화표지로서의 기능을 갖는바, 이때의 ‘참’은 사전의 기술과는 달리 감정 표현의 ‘참(眞)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이의 담화표지적 기능을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고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존의 견해와는 달리 감정 표현의 ‘참’과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음을 표현하는 ‘참’은 별개로서 동음어로 보아야 한다.

(2) 감정 표현의 ‘참’은 거의 모든 감정의 표현에 사용될 수 있는데, 이는 ‘참’이 고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감정을 표출하는 기능을 나타낼 뿐, 감정의 내용은 문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 이 논문은 2014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조성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3) ‘참’의 기본적인 의미 기능은 ‘구체적인 감정 유발의 상황을 접하여 이에 진정으로 공감하며 느끼는 감정의 직접적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4)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음을 나타내는 ‘참’은 부사 ‘참’과 무관하며 기존의 감탄사 ‘아차’에서 ‘아참’을 거쳐 나온 것이다.

(5) ‘참’은 담화표지로도 쓰이는데, 몇 가지 증거에 따르면 이는 부사와 감탄사에서 기원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기본적인 의미는 ‘발화시 화자의 진정성과 관련된 막연한 심리 태도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6) 담화표지 ‘참’의 담화적 기능은 발화에 대한 비단정적 태도의 표출, 발언권 유지, 시간 벌기 등이다.

(7)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음을 나타내는 감탄사 ‘참’도 담화표지로 분석될 수 있는데 이의 주된 담화적 기능은 정보의 수정과 초점화다.

주제어 : 감탄사, 담화표지, 감정 표출, 담화 전략, 비단정적 태도, 정보 수정, 초점화.

I. 문제의 제기

본고의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는 감정/느낌 표현과 관련 있는 ‘참’의 감탄사와 담화표지로서의 의미 기능을 밝히고 이들 용법과 의미 기능은 부사 ‘참’의 기본적인 어휘 의미에 의해 원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고, 둘째는 ‘참’이 감정/느낌 표현과는 무관하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음을 나타내는 감탄사적 용법과 담화표지로서의 용법을 갖는바, 이때의 ‘참’은 사전의 기술과는 달리 감정 표현의 ‘참(眞)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이의 담화표지적 기능을 밝히는 것이다. ‘참’은 명사, 부사, 접두사, 감탄사로 쓰이지만 담화표지로도 쓰인다. 사전(표준국어대사전)에 이들이 하나의 표제어 하에 여러 범주로 구별되어 있으나¹⁾ 이들이 기원적으로 동일한 것인지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논증을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

감탄사는 후행 발화 없이 단독적으로 쓰일 수 있는 특징을 갖는바, ‘참’은 화자의 다양한 감정을 드러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감탄사 ‘참’은 형식 그 자체가 특정한 감정/느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이 드러내는 특정한 감정은 상황 문맥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다양한 감정을 표출하는 ‘참’의 기본적인/본질적인 의미를 밝히고, 이는 부사나 명사로 쓰이는 ‘참(眞)’에서 기인된다는 사실을 통사·의미적 근거를 통해 논증하고자 한다. 또한 감탄사로 쓰이는 ‘참’은 의미 기능이 하나는 감정 표출이고 다른 하나는 문득 떠오른 생각의 표출이라는 상이한 의미 기능을 갖는데, 전자는 명사와 부사로서의 ‘참’과 기원이 동일하나 후자는 이들 형식과는 별개라는 사실을 밝히려고 한다. 나아가 이들 두 ‘참’ 모두 담화표지적 기능을 갖는바, 이들 담화표지로 쓰이는 ‘참’들은 결국 감탄사로 쓰이는 ‘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도 또 다른 본고의 목표가 된다.

한편 본고에서는 감정 표현의 ‘참’이 보이는 여러 가지 특징을 들어 이것이 담화표지로 쓰임을 보이고, 이때의 ‘참’은 기본적으로 감정 표현의 감탄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또한 ‘참’의 기본적인/본질적인 의미 기능이 수행하는 여러 가지 담화적 기능을 논의하며,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음을 드러내는 ‘참’도 담화표지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고 이의 담화적 기능도 살펴본다.

본고의 논의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II에서는 ‘참’의 여러 가지 용법에 대해 살펴보고, III에서는 다양한 문법 범주로 쓰이는 ‘참’의 의미적 관련성을 논의한다. IV에서는 ‘참’의 담화적 기능을 밝히고 V에서는 논의를 요약하고 문제점을 제시한다.

1) 표준국어대사전에 접두사 ‘참-’은 별개의 표제어로 구별되어 있으나 참고 어휘로 명사, 부사, 감탄사로의 ‘참’을 제시하고 있다.

II. ‘참’의 문법 범주와 의미적 관련성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참’은 명사, 부사, 접두사 등 다양한 용법을 갖는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동일한 항목이 다양한 범주적 용법(명사, 부사, 감탄사)을 지닌 것(품사 통용어)으로 기술되어 있고 접두사 ‘참-’도 이들과 관련된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사전을 참고하여 ‘참’의 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거짓은 참을 이기지 못한다.
- (2) 저 애는 눈이 참 크다.
- (3) 참땃, 참숯
- (4) 가. 참, 내가 지갑을 놓고 왔다.
나. 이것 참, 야단났군.
다. 참, 비 한 번 시원하게 내린다.
라. 참, 어디로 갈 테도 없고 이게 무슨 꼴이야.

‘참’이 (1)에서는 ‘사실이나 이치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명사(‘거짓’의 반의어)로 쓰였으며, (2)에서는 ‘사실이나 이치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의 의미를 가진 부사로 쓰였다. (3)에서 ‘참’은 접두사로 쓰인 것으로, ‘참땃’의 ‘참’은 ‘진실하고 올바른’의 의미를, ‘참숯’의 ‘참’은 ‘품질이 우수한’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4)의 ‘참’은 감탄사로서 표준국어대사전에는 4가지 용법이 제시되어 있는바, 이들은 ‘잇고 있었거나 별 생각 없이 지내던 것이 문득 생각날 때 내는 소리’(4가), ‘매우 딱하거나 어이가 없을 때 내는 소리’(4나), ‘감회가 새롭거나 조금 감탄스러울 때 나오는 소리’(4다), ‘매우 귀찮을 때 내는 소리’(4라) 등이다.

여기서 문제는 감탄사로 제시된 ‘참’의 4가지 의미 기능 중 (4가)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음’을 나타내는 감탄사 ‘참’은 다른 의미(용법)와 관련성을 찾을 수 없으며, 감탄사 ‘참’은 사전에 제시된 것 외에 훨씬 더 다양한 감정 표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사전에서 감탄사를 부사, 명사와 동일 항목의 표제어가 별개의 품사로 기능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감탄사 ‘참’이 부사나 명사의 의미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밝히는 일도 필요하다. 한편 담화표지로 쓰이는 ‘참’은 기원적으로 부사, 감탄사와 관련이 있는지, 관련이 있다면 기원적으로 담화표지는 부사 ‘참’이나 감탄사 ‘참’의 ‘眞’의 의미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Ⅲ. 두 가지 감탄사 ‘참’과 그 의미

1. 두 가지 감탄사 ‘참’

1) 감정/느낌 표현의 감탄사 ‘참(참₁)’

‘참’이 명사, 부사로 쓰일 때의 범주 공통 의미인 ‘사실이나 이치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음’을 달리 나타내면 ‘眞’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감탄사 ‘참’은 어휘적 의미를 갖지 않거나 희박하며 통사적으로 독립적인 문장 성분이라는 점에서, 이것이 부사에서 전성된 것으로 보여도 부사와의 의미적 관련성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의 관련성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부사 ‘참’의 어휘적 의미가 감탄사에서는 원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나타내며 이것이 어떻게 다양한 감정을 표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감탄사 ‘참’은 ‘감정’과 ‘생각’이라는 성격이 전혀 다른 의미 기능을 지닌 두 가지로 구별되는바(이후부터 이들을 각각 ‘참₁’과 ‘참₂’로 부르기로 한다.), 사전에 ‘참₁’과 ‘참₂’의 의미를 한

어휘의 다의적 의미로 분석하고 있다.

‘참’의 감탄사로서의 쓰임을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5)가. (응원하는 축구팀이 실점하는 상황에서) 참, (왜 저래?)

나. (노래를 썩 잘 하는 모습을 보고), 참, (노래 잘하네.)

(6)아들: 엄마, 나 취직했어.

엄마: 참, (드디어 취직을 했구나.)

(7)가. 참, (방에 들어가 지갑을 가져온다.)

나. 참, 너 나이가 몇 살이지?

감탄사 ‘참’이 (5)에서는 화자가 접한 상황에서, (6)에서는 상대의 발화에 대해서 사용되었다. 이들 ‘참’ 뒤에는 괄호 속의 발화가 이어질 수도 있으나 ‘참’ 단독으로도 사용될 수도 있다. ‘참’이 단독으로 사용될 때는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참’ 뒤에 발화가 이어져도 ‘참’은 후행하는 내용과 통사적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법적으로 독립적이다. 그런데 (5), (6)에서 ‘참’은 화자의 특정한 느낌이나 감정을 표출하는 기능을 나타낸다. 한편 (7)은 느낌이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고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음’을 나타내는 기능을 갖는다. (7가)는 감탄사 ‘참’ 뒤에 구체적인 행동이 이어지고 있으나 (7나)에서는 발화가 이어진다. 이 경우 화자에게 떠오른 생각이 무엇인지는 행동이나 발화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때도 ‘참’은 후행문과 통사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법적으로 독립적인 감탄사로 쓰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5, 6)의 ‘참’과 (7)의 ‘참’은 의미 면에서 판이하게 다르다. 전자는 ‘감정’ 표출에 쓰이고 후자는 이들과는 무관한 ‘생각’의 표출에 쓰이는 것이다.

이전의 논의에서²⁾ 감탄사 ‘참’은 부사 ‘참’에서 기원되었다고 보고 있고, 사전의 기술도 이를 전제하고 있으나, 만일 ‘참₂’가 ‘참₁’과 기능이 전혀 다

른 것이라면 '참₂'는 부사와는 무관한 별개의 감탄사라고 할 수 있다. '참₁'과 '참₂'가 동일한 것인지 아닌지는 '참₁'의 다양한 의미 기능이 어디서 기원하며 어떤 원리에 의해 기인하는지 살핌으로써 명백하게 드러날 수 있다. 이제 감탄사 '참₁'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8) A: 이로가 합격했어요.

B: 참, (잘됐다.) ⇒ 기쁨

(9) (영화를 보다가 눈물을 닦으면서) 참, (어떻게 해?) ⇒ 슬픔

(10) (자기에게 욕설을 퍼붓는 상대를 향하여) 참, (너 제정신이야?)

⇒ 분노

(11)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사는 동네에 온 것을 깨닫고) 참,

(재수 없게 이 동네야?) ⇒ 불쾌감

(12) (아이가 말썽을 부리는 상황에서) 참, (무슨 저런 애가 있어?)

⇒ 미움(증오)

(13) (손자가 귀엽게 인사하는 상황에서) 참, (아이고, 내 새끼.) ⇒ 사랑

(14) (예쁘다고 칭찬하는 상황에서) 참, (정말로 하는 말이지?) ⇒ 부끄러움

(15) A: 너는 이번 경기 선발에서 제외되었어.

B: 참, (일 년이나 기다렸는데……) ⇒ 실망

(16) (착한 자기 아이가 폭력에 가담했다는 말을 듣고) 참, (그게 정말이야?)

⇒ 당혹

(17) 아내: 엄마가 시골에서 보내셨어요.

남편: 참, (우리는 해 드린 것도 없는데……) ⇒ 감사

(18) 아내: 그 사람이 결국 집을 팔았대요.

남편: 참, (좀 더 기다렸어야 하는데……) ⇒ 아쉬움

2) '참'에 대한 논의(오승신 1995, 강우원 2000)에서는 이들이 동일한 기원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문득 떠오른 생각을 나타내는 '참'과 감정/느낌 표현의 참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위에서 ‘참’은 화살표 우측에 표시한 것과 같은 다양한 감정을 표출하는데 쓰일 수 있다.³⁾ 물론 감탄사 ‘참’은 괄호로 표시된 것과 같은 후행 발화와 함께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후행 발화 없이도 비명시적이긴 하지만 오른쪽에 표시한 감정을 드러낼 수 있다. 느낌(감정과 감각 포함)을 나타내는 감탄사를 반사적인 것과 인지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⁴⁾ 전자는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화자의 무의식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표출할 때 내는 말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대상이나 상황 정보를 지각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거친 뒤 표출하는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참’은 모두가 감탄사를 표출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 채 느낌을 표출하는 반사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대상이나 정보를 지각하고 판단한 뒤에 드러내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참’은 다음에서 보듯이 무의식적으로 반사되는 느낌을 나타내지는 못한다.

- (19) 가. (머리를 문지방에 부딪쳤을 때) *참/아이쿠/아, (왜 이리 낮아?)
 ⇒ 고통
 나. (무서운 영화 장면의 출현 순간에) *참/아/악, (더 이상 못 보겠다.)
 ⇒ 공포
 다. (누군가가 숨어 있다가 깜짝 놀라게 하는 상황에서)
 *참/아/아이쿠/어머나, (깜짝이야.) ⇒ 놀람
 라. (응원하는 팀이 골을 넣는 순간) *참/아/와, (대단하다.)
 ⇒ 감격(기쁨)

3) 물론 위 예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감정은 ‘참’이 드러낼 수 있는 감정을 망라한 것이 아니다. ‘참’은 더 많은 감정 표현에 쓰일 수 있다. 또한 위에서 각 예문이 드러내는 감정이 그 문맥에서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아니며 절대적인 것도 아니다. 그러나 ‘참’이 여러 가지 감정을 드러내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4) 감탄사의 분류에 대해서는 김미선(2010) 참고.

위에 제시된 상황은 순간적인 고통, 공포, 놀람, 감격(기쁨) 등의 느낌을 유발하는 것으로서 이들 상황에서의 느낌은 순간적이고 반사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위 예들에서 '아, 악, 아이쿠, 어머니' 등은 쓰일 수 있으나 '참'은 쓰일 수 없다. 즉, '참'은 반사적인 느낌을 나타내는 상황에서는 쓰이지 못한다. '참'은 상황에 대한 인지적 감정 표출의 감탄사인 것이다.

사전에 감탄사 '참'과 부사, 명사가 동일한 형식의 다범주적 기능을 갖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과연 감탄사 '참'과 부사의 의미적 관련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제 이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8-18)에 쓰인 감탄사 '참'은 직관적으로 '眞'의 의미와 관련이 있는 감정의 진정성을 표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예문에서 '참'은 명시적으로 '眞'의 의미를 포함하는 감탄사 '참말', '정말' ('진짜')와⁵⁾ 큰 의미 차이 없이 교체될 수 있다.⁶⁾ 이런 사실은 '참'이 부사 '참'과 기원적으로 동일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감탄사 '참'이 부사 '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앞 (8-18) 예문에서 표출하는 감정을 형용사로 복원하여 이를 부사 '참'으로 수식하는 구문과 비교해 봄으로써 뒷받침될 수 있다.

(8') A: 이로가 합격했어요.

B: 참 기쁘다, (잘됐다.)

(9') (영화를 보다가 눈물을 닦으면서) 참 슬프다. (어떻게 해?)

(10') (자기에게 욕설을 퍼붓는 상대를 향하여) 참 화난다/분노스럽다.

(너 제정신이야?)

(11')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사는 동네에 온 것을 깨닫고) 참 불쾌하다.

5) 사전에는 '진짜'가 감탄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 또한 감탄사로서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다.

6) 이때 '참말', '정말', '진짜'는 감정의 진정성을 명시적으로 표출한다고 할 수 있다.

(재수 없게 이 동네야?)

(12') (아이가 말썽을 부리는 상황에서) 참 밉다. (무슨 저런 애가 있어?)

(13') (손자가 귀엽게 인사하는 상황에서) 참 사랑스럽다. (아이고, 내 새끼.)

(14') (예쁘다고 칭찬하는 상황에서) 참 부끄럽다. (정말로 하는 말이지?)

(15') A: 너는 이번 경기 선발에서 제외되었어.

B: 참 실망스럽다. (일 년이나 기다렸는데……)

(16') (착한 자기 아이가 폭력에 가담했다는 말을 듣고) 참 당혹스럽다.

(그게 정말이야?)

(17') 아내: 엄마가 시골에서 보내셨어요.

남편: 참, 고마우시다. (우리는 해 드린 것도 없는데……)

(18') 아내: 그 사람이 결국 집을 팔았대요.

남편: 참 안타깝다. (좀 더 기다렸어야 하는데……)

(8-18)을 바꿔 쓴 (8'-18')은 부사 '참'이 감정 형용사를 수식함으로써 화자가 느끼는 감정의 진정성(眞)을 직접 드러내는 방식이므로⁷⁾ 감탄사 '참'이 쓰인 구문과 형식이 다른은 물론, 의미 면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이들 구문은 '진정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의미적으로 유사성이 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은 감탄사 '참'이 드러내는 '감정의 진정성'이 부사 '참'의 '眞'의 의미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8-18)에서 보듯이 '참'은 다양한 감정을 표출하는 것으로 쓰이는 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다. 일반적으로 느낌/감정을 나타내는 감탄사가 그 형식이 고정된 느낌을 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⁸⁾ '참'은 왜 특정한 감정 표출에 쓰이지 않고 반사적인 느낌을 제외한 다른 여러 가지 감정을 표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까? 본고에서는 '참'이 이렇게 다

7) 부사 '참'도 그 어휘 의미상 화자의 감정의 진정성을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8) 이와 달리 여러 가지 감정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감탄사도 상당수 존재하는바, 대표적인 것이 '야'이다.

양한 감정 표현에 쓰이는 이유는 '참'의 감정 표현이 '참' 자체의 의미에서가 아니라, 문맥 의존적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감탄사 '참'의 내재적/본질적인 의미 기능이 무엇이기에 이것이 나타내는 감정이 문맥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다.

감탄사가 독립 성분으로서 다른 문장 성분과 직접적인 문법적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감탄사 '참'이 부사 '참'과 관련이 있다면 이것이 감탄사로 쓰일 때 그 본래의 의미가 간접적인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참'이 감탄사로 쓰이는 상황과 부사로서의 그 어휘적 의미에 기초하여 우리는 감탄사 '참'의 내재적인 의미 기능을 다음과 같은 방식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고 본다.

- (a) '참'은 구체적인 감정 유발의 상황에서 감탄사로 쓰인다.
- (b) 화자는 어떤 감정 유발 상황을 지각하고 판단하여 특정한 감정을 갖는다.
- (c) 화자는 '참'을 사용하여 그 감정을 언어적으로 직접 표출한다.
- (d) 이때 화자가 감정 표현으로 사용하는 '참'은 다른 문장 성분과 문법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감탄사라는 범주적 특성 때문에 그 어휘적 의미를 직접 드러내지 못하므로, 본질적 의미 '眞'이 변용되어 상황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감정이 진정으로 공감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 (e) 위의 과정을 종합하면 '참'은 어떤 감정 상황에 대해 지각하고 판단한 뒤 드러내는 감정을 표출하는 인지적 감탄사이며, 기본적인 의미 기능은 '구체적인 감정 유발의 상황을 접하여 진정으로 공감하며 느낀 감정의 직접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감탄사 '참'의 부사 '참'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참'의 '감정의 진정성' 표출 기능은 '참'이 반사적 느낌을 표출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앞에 제시한 반사적 반응으로서의 느낌은 즉각

적인 것이어서 인지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있을 수 없다. 즉,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부사 ‘참’의 관련성이 전제되는 진정으로 공감하는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참’이 반사적 반응으로 쓰일 수 없다는 것은 감탄사 ‘참’이 부사 ‘참’과 의미적인 관련성을 지닌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된다.

‘참’의 특정한 감정과 관련 없는 단순한 감정/느낌의 진정성 표출 기능은 ‘참’이 증의적인 ‘감정/느낌’의 문맥에서 쓰인다는 사실로 확인된다.

(20) A: 그 사람이 이걸 보냈어요.

B1: 참, (고작 이거야?) ⇒ 실망

B2: 참, (뭐 이렇게 귀한 것을 보냈대?) ⇒ 감사(감탄)

B3: 참, (무슨 이따위 짓을 해?) ⇒ 분노

B4: 참, (왜 그 사람이 이런 걸 보냈지?) ⇒ 당혹

B5: 참, (내가 뭘 해 준 게 있다고.) ⇒ 부끄러움

B6: 참, (드디어 보냈구나.) ⇒ 기쁨

B7: 참, (그 사람이 무슨 돈이 있다고?) ⇒ 연민

B8: 참, (기분 나쁘게 왜 나한테 이런 것을 보내?) ⇒ 불쾌감

B9: 참, (그 사람, 나한테 연락이나 좀 하지.) ⇒ 서운함

위에서 보듯이 ‘참₁’은 여러 가지 감정을 나타내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후행 발화가 없다면 ‘참₁’의 의미는 모호하게 된다. 이런 사실은 앞서 언급했듯이 ‘참₁’이 그 자체로 어떤 특정한 감정/느낌과 관련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참₁’이 여러 가지 감정 표출에 쓰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참’의 이런 특성 때문이다.

2) 참₂

이제 통사, 의미 기능 면에서 역시 감탄사로 분류될 수 있으나 화자의

감정/느낌 표현이 아니라, 지각 내용을 표현하는 '참'의 다른 의미 기능을 살펴보기로 한다.

- (21) 가. 참, 오늘이 네 생일이구나.
나. 참, 너 모임에 갈 거니?
다. 참, 너 들어오면서 전구 하나 사와라.
라. 참, 내일은 좀 일찍 만나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예문에서 '참'은 지각 작용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각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지각 내용의 표현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며 표현 내용은 '생각'이므로 감정/느낌과는 무관하다. 이 경우 '생각'은 잊고 있었던 일이거나 화자의 의식 세계와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참'은 느낌/감정의 '참'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우리는 '감정'의 '참₁'은 본질적으로는 부사 '참'과 직접 관련된다 고 주장했으나, '참₂'는 부사 '참'과 의미상 관련된다고 볼 수 없다. '참말', '정말', ('진짜')는 감탄사로 쓰이는바, '참₁'은 '참말', '정말', ('진짜') 등 감탄사와 대체될 때 어느 정도 의미적 유사성이 존재하나 '참₂'는 이들과 교체될 때 의미적 유사성이 없다. 또한 '참₁' 뒤에는 이와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감정/느낌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설정될 수 있으나 '참₂'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요컨대 '참₂'는 '참₁'과 관련이 없고 그 자체가 독자적인 의미를 지닌 감탄사라고 할 수 있다.

'참₁'과 '참₂'가 무관하다는 것은 새롭게 접하는 상황 정보가 '참₂'와 같이 쓰일 수 없다는 사실로도 뒷받침된다.

- (22) 가. (문을 열어 보고) *참₂, 비가 오는 구나.
나. (유성이 지는 것을 보고) *참₂, 별뿔별이 떨어지네.

다. (개표 결과 발표 전 개표 결과지를 받아 들고) *참₂, 김동선이 당선 되었네?

위 문장은 새롭게 접하는 상황을 제시한다. 따라서 이들 상황 정보는 떠오르는 생각이나 순간적인 깨달음과는 상관이 없다. 새로운 정보 내용이 '참₂'와 공기할 수 없다는 사실은 '참₂'의 의미 기능이 '생각'이나 '깨달음'의 표출 표지라는 것을 뒷받침한다. 요컨대, '참₂'는 지각에 의한 인지 작용의 표출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는바, '참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편 '참₁'과 '참₂'는 의미적 차이 외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참₁'은 발화의 첫 부분에 오는 것이 정상적이거나 '참₂'는 그 출현 위치가 자유롭다.

(23) 가. (참₂), 지갑을 (참₂) 안 가져왔네. (참₂).

나. (참₂), 네가 (참₂) 올해 (참₂) 몇 살이지 (참₂)?

위에서 보듯이 '참'은 반드시 문두에 위치하지 않아도 된다. '참₂'는 문말에도 나타날 수 있고 문중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참₁'은 반복적으로 사용되기 어렵지만 '참₂'는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즉, 위 예문에 괄호 속의 '참₂'가 모두 실현되어도 수용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⁹⁾ 셋째, '참₂'는 '참₁'과 음운론적 실현 방식이 다르다. '참₂'는 짧게 발음되거나 약간 길고 끝을 높이는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지만 '참₁'은 길게 발음될 수 있으나 끝을 약간 올리는 억양으로는 실현되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을 통해 '참₁'과 '참₂'는 각기 다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감탄사 '참₂'가 단순히 '참₁'의 동음이의어인지 다른 기원을 갖

9) '참₂'이 중복 출현할 때 이는 계속해서 떠오른 생각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떠오른 생각을 강조하는 것이다.

는지가 문제다. 여기서 우리는 '참₂'를 역시 떠오른 생각이나 순간적인 깨달음을 나타내는 '아, 아차, 아참' 등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¹⁰⁾

(24) 가. 참/아차/아참, 오늘 미애가 온다고 했지?

나. 참/아차/아참, 내가 이려고 있을 때가 아니지.

위에서 '아, 아차, 아참'은 '참₂'와 큰 의미적 차이 없이 쓰일 수 있다. 사전에서 '아차'는 '무엇이 잘못된 것을 갑자기 깨달았을 때 하는 말'로 정의되어 있으나, '아차'도 문득 떠오른 생각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아차'와 '참'이 모두 감탄사로 쓰이고 의미적으로 유사하다는 사실은 '참₂'가 '아차'에 기원을 두고 있을 가능성을 보인다.¹¹⁾

한편 '아차'는 '아참'과 교체되어 쓰일 수 있는데 '아참'은 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활발하게 쓰이는 감탄사다. '아차'와 형태상 유사성을 지닌 '아참'은 감탄사 '아'와 '참'의 결합형이라기보다는 이전에 써 오던 감탄사 '아차'에 'ㅁ'이 음운론적으로 첨가된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올랐음을 나타내는 현대국어의 '참₂'는 '아참'에서 '아'가 음운론적으로 약화되어 탈락됨으로써 나타난 형태라고 볼 수 있다.¹²⁾¹³⁾

10) 생각의 떠오름을 나타내는 간투사는 이 외에 '아, 아하, 아뿔싸, 정말, 옳아, 옳지' 등이 더 있다.

11) 물론 '아차'와 '참'의 의미는 동일하지 않고 모든 '참'이 '아차'와 교체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떤 생각이 떠올랐음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의미를 지닌다.

12) 이런 과정에는 감탄사 '참'에의 형태론적인 유추가 작용했을지도 모른다.

13) '참'이 '아차'에서 기원되었다고 해도 '참'은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음을 나타내지만 '아차'는 무엇이 잘못되었음을 갑자기 깨달았을 때 쓰이는 감탄사이므로, '아차', '아참'은 '참'과 용법이 동일하지는 않다. 예를 보기로 한다.

가. ??아차/아참/참 네가 올해 몇 살이지?

나. ??아차/아참/참 내일은 좀 일찍 만나자.

IV. 담화표지 ‘참’의 의미 기능

1. 느낌/감정 표현의 담화표지 ‘참(참₃)’

지금까지 ‘참’을 ‘참₁’과 ‘참₂’로 구분하여 이들의 감탄사적 기능을 살펴보았다. 이제는 ‘참’의 또 다른 기능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다음 예를 보기로 한다.

(25) 가. 너도 (참) 이제 (참) 나이를 먹는가 보다 (참).

나. 내가 (참), 나이가 (참) 벌써 (참) 칠십이 다 되었어 (참).

위 예문에 쓰인 ‘참’은 감탄사로 쓰이는 ‘참’과 형태가 같지만 이들의 위치가 문두가 아니라는 점에서 감탄사로 쓰인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경우 ‘참’은 기능적으로도 직접적인 어떤 상황에 접했을 때 발생하는 감정을 표출하거나 문득 떠오른 생각을 나타내지 않는다.

한편 위의 ‘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명제적 의미가 약하거나 거의 없다. 즉, 직접적으로 어휘적인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둘째, 문장의 다른 성분과 명시적인 문법적 관계를 갖지 않는다. 셋째, 문장 내의 분포가 자유롭다. 즉, 문두나 문말, 문중 어디에나 나타날 수 있다. 넷째, 반복적인 출현이 가능하다. 위에서 보듯이 ‘참’

다. ??아차/아참/참 미자가 결혼했다.

위 예문에서 보듯이 ‘아차’와 ‘참₂’는 교체되어 쓰이기 어렵다. ‘아차’는 ‘무엇이 잘못 되었을 때 하는 말인바’ 이들 예문은 이런 의미로 해석되기 어려우므로 제약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참’은 자연스럽다는 점에서 이는 ‘참₂’와 의미적으로 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아차’와 ‘참₂’는 부분적으로는 의미가 같지만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아차’, ‘아참’, ‘참₂’는 의미 분화의 사실을 보여 준다. ‘아차’를 더 기원적인 형태라고 보고 ‘아차’의 의미가 원래의 의미를 유지하는 형태라고 할 때 ‘참₂’가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므로 의미가 확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은 한 문장 안에서 여러 번 출현할 수 있다. 다섯째, 수의적인 존재다. 위 문장에서 ‘참’이 없다고 해도 명제적인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섯째, 독립적인 억양 형으로 나타난다. 또한 앞 단어와의 사이에 휴지를 둘 수도 있지만 앞 단어에 바로 결합되어 발화될 수 있다.¹⁴⁾ 또한 강세가 놓일 수 없다. 위의 사실들은 ‘참’을 부사로 볼 수 없게 한다.

위에 제시한 ‘참’의 특징은 ‘참’이 전형적인 담화표지임을 의미한다(이후부터 담화표지로 쓰이는 ‘참’은 ‘참₃’으로 부르기로 한다.). 그렇다면 담화표지 ‘참’과 감탄사(참₂), 부사와 ‘참’의 관계는 어떠하며 담화지로서의 ‘참’의 담화적 기능과 이런 담화적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특징은 무엇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

담화상에서 ‘참’은 여러 가지 담화적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서 문제는 ‘참₃’이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 기능을 지니기에 이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느냐는 것이다. ‘참₃’의 여러 담화적 기능이 이의 기본적인 의미 기능에 기초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담화표지는 어휘적인 의미를 명시하기 어렵다고 했거니와 담화표지가 기본적으로 드러내는 추상적인 의미 기능을 추출하는 것은 가능하다. ‘참₃’의 의미 기능은 우선 부사로서의 ‘참’과 형태적 동일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부사 ‘참’의 의미의 관련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6) 가. 내가 참/참말(로)/정말(로)/진짜(로) 참으니까 그렇지 마음 같아서
는 가만둘 수 없어.

나. 요즘 참/참말(로)/정말(로)/진짜(로) 정치인들 하는 것을 보면 유권자들이 크게 각성해야 한다니까.

다. 그때는 참/참말(로)/정말(로)/진짜(로) 몰랐는데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을 고생 많이 하셨어.

14) 담화표지의 특징에 대해서는 Brinton(1996) 참고.

위에서 ‘참’은 부사(어) ‘참말(로), 정말(로), 진짜(로)’ 등과 의미 기능면에서 큰 차이 없이 교체가능하다. 물론 후자들도 위 예에서 담화표지적 용법을 보이는 것이지만 이들이 부사(어)로 쓰일 때 그 기본적인 의미가 ‘참(眞)’과 직접 관련된 어휘들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담화표지로 쓰이는 ‘참’은 기원적으로 부사 ‘참’과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감탄사 ‘참’이 부사 ‘참’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 본질적인 기능을 살펴보았는바, 담화표지 ‘참₃’의 본질적인 의미 기능도 감탄사 ‘참’의 의미 기능과 같은 원리에 의해서 기인되며 여러 가지 담화적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앞에서 감탄사 ‘참₁’은 ‘구체적인 감정 유발의 상황을 접하여 진정으로 공감하며 느낀 감정의 직접적인 표출’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감탄사 ‘참₁’이 부사 ‘참’의 의미에서 기원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담화표지도 역시 부사에서 기원하는 감탄사 ‘참₁’과 같은 원리로 의미 기능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 중요한 의미 기능은 역시 감탄사와 같이 부사 ‘참’의 기본 의미 ‘眞’에서 기인하는 화자의 진정성과 관련된 감정의 표출일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¹⁵⁾

그렇다면 담화표지 ‘참₃’의 기본적인 의미 기능은 무엇인가? 담화표지 ‘참₃’이 나타내는 화자의 감정도 감탄사 ‘참₁’의 경우와 같이 특정한 감정은 아닐 것이다. 감탄사는 감정을 유발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쓰이나 담화표지로 쓰이는 ‘참₃’은 구체적인 감정 유발의 상황에서 쓰이는 것이 아니다. 또한 담화표지로서의 ‘참₃’의 기본적인 감정 표출은 구체적인 감정 표출의 대상이나 상황을 통해 직접적으로 자극을 받아 표출되는 것이 아닌 자발적인 감정 표출이기 때문에 약화된 감정 표출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15) 부사 ‘참’도 심리 태도를 표출하는 기능이 있다.

감탄사 '참₁'은 독립어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감정의 표출이 직접적이고 독립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담화표지는 문장 단위의 발화 내에서 실현되므로 독립어로서의 성격을 지니지 못한다는 점에서 감정의 표출이 독립성을 지니지 못할 뿐 아니라, 간접적인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에 기초하여 담화표지 '참₁'의 기본적인 의미 기능은 '발화시 화자의 진정성과 관련된 막연한 심리태도(허심탄회함)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몇 가지 근거를 들어보기로 한다.

첫째, '참₃'은 서술문에서만 사용된다. 즉,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약속문에서는 '참₃'이 쓰일 수 없다.

(27) 가. ?미자가 참₃ 내일 미국으로 떠납니까?

나. ?너는 참₃ 마트에 갔다 와라.

다. ?우리 참₃ 내일은 회식 장소를 바꿉시다.

담화표지 '참₃'은 발화시 갖는 화자의 막연한 심리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바, 이는 발화시 화자의 심리 태도의 표출이다. '참₃'을 사용할 때 화자의 심리 상태는 발화시 상황이나 이전 상황에 기초한 다. '참₃'이 의문문과 명령문, 청유문에서 쓰이지 못하는 것은 이들 문장은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낼 만한 상황, 즉 발화시나 발화시 전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전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의문문은 정보를 요구하는 문장이므로 이 내용과 관련된 발화시나 발화시 전의 상황이 존재할 수 없고, 역시 명령문이나 청유문은 장차의 행위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낼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참₃'은 이들 문장에는 쓰일 수 없다. 이런 사실은 곧 담화표지 '참₃'의 기본적인 의미 기능에 대한 위의 설명을 뒷받침한다.¹⁶⁾

16) 물론 '도서관에 참 내가 놀러 갔습니까?'에서 보듯이 표면상 '참'이 의문문에 쓰이는

둘째, 새롭게 깨달은 사실을 나타내는 문장에는 쓰일 수 없다.

- (28) 가. (주차 후 차에서 나와 차를 보면서) *창문을 찜₃ 안 닫았네.
 나. (커튼을 걷어 올리며) *밖에 찜₃ 비가 오네.
 다. (아들 방문을 열어 보고 아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너 찜₃ 공부하는구나.

위 발화는 모두 화자가 처음 접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찜₃’이 담화표지로 해석되는 한 이들 문장은 자연스럽지 않다.¹⁷⁾ 발화시 새롭게 깨달은 사실에 대해서는 화자가 어떤 심리적 태도도 갖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찜₃’은 반복 출현이 가능하다.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감탄사 ‘찜₁’의 경우 반복적 출현이 불가능한 것을 고려하면, 담화표지는 반복 출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통해 담화표지 ‘찜₃’이 ‘심리 태도’의 표출 기능을 갖는 것이 이해될 수 있다.¹⁸⁾ ‘심리 태도’의 표출은 반복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담화표지 ‘찜₃’의 기본적인 의미 기능은 ‘발화시 화자의 진정성과 관련된 막연한 심리 태도(허심탄회함)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찜₃’의 담화표지적 기능

이제 ‘찜₃’의 담화표지적 기능을 살펴보기로 한다. ‘찜₃’의 막연하고 허심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찜’은 ‘어이없음’이라는 구체적인 화자의 감정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찜₃’과는 다른 것이다. 이 경우 ‘찜’은 감탄사적 성격을 갖는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의하지 않는다.

17) 위 경우 모두 깨달음을 나타내는 ‘찜₂’로는 해석될 수 있다.

18) ‘찜₃’이 ‘뭘’나 ‘글쎄’ 등과 같은 담화표지와 잘 어울린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찜₃’이 막연한 심리 태도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탄회한 심리태도의 표출이라는 의미 기능은 담화상에서 다양한 기능으로 나타난다.

첫째, '참'은 발화 내용에 대한 화자의 비단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29) 가. 이로가 이번 시험에서 일등 했어.

나. ??이로가 참₃ 이번 시험에서 참 일등 했어.

(30) A: 주희가 뭘 먹었나?

B: 주희 우동 먹었어.

B': ?주희 참₃ 우동 먹었어.

위에서 보듯이 '참₃'이 쓰인 구문은 단도직입적으로 새로운 사실을 제공하는 문장에서 제약된다. '참₃'이 비단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는 것은 '참₃'이 어떤 일을 직접적으로 명령하거나 청구하는 문장에 쓰일 수 없다는 사실과, 다음과 같이 강요하는 문장에 쓰일 수 없다는 사실로도 뒷받침된다.¹⁹⁾

(31) 가. 올해는 너도 취직을 해야 해.

나. ?올해는 너도 참₃ 결혼을 해야 해.

(31나)에서 보듯이 '참'은 청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문장인바, '참₃'이 제약된다. 이는 '참₃'이 새로운 사실을 단정적으로 제시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₃'은 다음과 같이 정보를 우회적으로 제공할 때는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다.

19) 그러나 일반적으로 당위적 일을 나타내는 문장은 '참'이 쓰일 수 있다(예: 사람은 참₃ 정직해야 해.).

- (32) 가. 이로가 어제 돌아왔어
 나. ?이로가 어제 참₃ 돌아왔어.
 다. 이로가 어제 참₃ 돌아오기는 했어.

(32나)에서 보듯이 새로운 사실을 명시적, 단정적으로 제공하는 문장에 ‘참₃’이 개입되면 수용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새로운 사실을 비단정적인 간접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32다)는 ‘참₃’이 개입되어도 자연스럽다. (32다)는 보조사 ‘-는’을 통해 함축적인 의미도 전달함으로써 정보 제공의 직접성이 회피된다. 위에서 ‘참’이 쓰인 (32다)가 적합한 것은 ‘참’의 막연한 심리 태도의 표출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는’이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비명시적인 배경 정보는 ‘참’의 막연한 심리태도와 어울린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33) 가. 삼촌이 집에 오면 늘 우리한테 돈을 주었어.
 나. ?삼촌이 집에 오면 참₃ 늘 우리한테 돈을 주었어.
 다. 삼촌이 집에 오면 참₃ 늘 우리한테 돈을 주었는데……

역시 (33나)가 보여 주듯이 단정적인 문장인 (33가)에 ‘참₃’이 개입되면 자연스럽지 않다. 이에 비해 종결어미가 아닌 접속어미 ‘-는데’가 쓰인 (33다)는 자연스럽다. ‘-는데’는 배경과 관련된 함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바, 이는 ‘-는데’가 제시하는 내용을 배경 정보로 만듦으로써 간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게 한다. 따라서 발화를 비단정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29나), (30B)이 ‘참₃’을 허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 정보가 너무 명백하고 객관적인 정보여서 화자의 막연한 심리태도의 표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참₃’은 발화 내용을 비단정적으로 제시하는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단정적인 발화는 발화를 좀 부드럽게 만드는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는바, 청자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인 태도로 나타난다. 즉, '참₃'은 화자가 청자에게 대해 온화하고 겸손하며 청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34) 가.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네.

나. 나는 (참₃)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참₃ 할 말이 없네.

(35) A: 자네가 좀 도와줘야겠네.

B: 제가 지난 번 일은 협조했지만 이번 일은 곤란해요.

B': 제가 참₃ 지난 번 일은 (참₃) 협조했지만 (참₃) 이번 일은 곤란해요.

(36) A: 내일도 와서 좀 도와주게.

B: 내일은 제 생일이예요.

B': 내일은 참₃ 제 생일이예요.

(34나)는 (34가)에 비해서 청자에게 더 온화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 (35B')는 (35B)에 비할 때 청자에 대한 겸손한 태도가 나타나며, (36B')는 (36B)에 비해 거절의 상황에서 청자의 체면과 입장을 고려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참₃'은 발화에 대해 비단정적인 화자의 심리태도를 나타내는바, 이는 화자의 허심탄회한 심리 태도의 표출이라는 의미 기능의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화자의 심리 태도는 발화를 유화적/친화적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참₃'은 발언권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37) 가. 우리 경제가 참₃ 지금은 어렵지만 참₃ 그래도 조만간에 참₃ 나아질 거예요.

나. 그 사람은 참₃ 가난하지만 참₃ 항상 밝아 보여 참₃.

위에서 ‘참₃’은 반복적으로 쓰였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화자의 막연하고 허심탄회한 심리 상태를 나타내지만 화자는 발화 중에 ‘참’을 사용함으로써 청자가 발화에 끼어들 여지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를 나타낼 수 있다. 즉, ‘참₃’은 발언권을 계속 유지하는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다.

셋째, ‘참₃’은 시간별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참₃’은 후행발화 내용이 생각나지 않을 때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생각해 내기 위한 시간 확보의 기능, 즉 시간 별기 기능을 할 수 있다.

3. 감탄사 ‘참₂’ 기원의 담화표지(참₄)의 담화적 기능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음을 나타내는 감탄사 ‘참₂’도 담화표지적 기능을 갖는다. 감탄사 ‘참₂’가 담화표지로 쓰이는 경우 이를 ‘참₄’로 부르기로 한다. ‘참₄’는 발화 문에서 출현 위치도 자유롭고 앞서 확인했듯이 반복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또한 감탄사로 쓰일 때와는 달리 선행어에 휴지 없이 결합되어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감탄사와 같이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음을 표출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의미 기능을 나타낸다. 이 경우 ‘참₄’를 감탄사의 특이한 용법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담화표지로 간주하기로 한다. 여기서 담화표지로서의 ‘참₄’의 담화적 기능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²⁰⁾

‘참₄’는 첫째, 정보를 수정하는 기능을 갖는다.

(38) 가. 주희가, 참₄ 이로가 전화했어.

나. 희영이가 방학 때 미국, 참₄, 호주에 간대.

20) 감탄사 ‘참₂’는 그 자체로 명시적인 담화적 기능을 수행하는바, 중요한 담화적 기능은 화제 전환 기능, 주의집중 기능, 발언권 가져오기 등이다. 본고에서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논의하지 않는다.

위 예에서 보듯이 '참₄'는 이에 선행하는 정보가 잘못된 정보이고 '참₄'에 후행하는 정보가 올바른 정보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참₂'의 기본 의미에 의해 문득 떠오른 정보가 후행하는 정보라는 '참₂'의 기본적인 기능에서 기인한다.

둘째, 초점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 (38) 가. 진주가참₄ 차를 샀어.
나. 영욱이가참₄ 피자를 좋아해.
다. 한옥은 전주에참₄ 많지.

위에서 '참₄'는 선행어에 휴지 없이 결합되어 실행되는바, 이 경우에는 '참₄'이 결합된 선행어가 초점 성분이 된다. 이때 '참'은 그것이 결합된 성분을 X로 한 전제를 유발한다.

V. 결론

감정 표현과 관련된 '참'의 감탄사와 담화표지로서의 의미 기능을 밝히고 이들의 의미 기능이 부사 '참'의 기본적인 어휘 의미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보이고, 문득 떠오른 생각을 표출하는 '참'과 감정 표출의 '참'은 별개의 감탄사라는 것을 논증하는 것이 본고의 목표였다. 본고의 논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은 명사, 부사, 감탄사, 접두사로 쓰이는 범주 통용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감탄사로서 '참'은 감정 표출과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음을 표출하는 의미 기능이 상이한 두 가지로 분류된다.

둘째, 감정 표현에 쓰이는 ‘참’은 반사적인 느낌 표현에는 사용되지 못하는 인지적 감탄사다.

셋째, 감정 표현의 감탄사는 사전의 의미 기술과는 달리 거의 모든 감정 표현에 사용될 수 있다.

넷째, 직관적 의미와 몇 가지 증거에 의해 감탄사 ‘참’은 부사 ‘참’에서 기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감정 표현의 감탄사 ‘참’의 기본적인 의미 기능은 ‘구체적인 감정 유발의 상황에 진정으로 공감하여 느낀 감정의 직접적인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참’이 거의 모든 감정 표현에 쓰일 수 있는 이유는 이 형식이 고정적인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감정을 표출하는 기능을 가질 뿐이며 감정의 내용은 문맥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일곱째, 어떤 생각이 문득 떠올랐음을 나타내는 ‘참’은 부사 ‘참’과 무관하며 이전부터 감탄사로 쓰이는 ‘아차’에서 ‘아참’을 거쳐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덟째, ‘참’은 담화표지로도 쓰이는바, 이는 몇 가지 증거에 의할 때 감탄사와 부사 ‘참’에서 기원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의 기본적인 의미 기능은 ‘발화시 화자의 진정성과 관련된 막연한 심리 태도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아홉째, ‘참’의 담화적 기능은 화자의 발화 내용에 대한 비단정적인 태도 표출, 발언권 유지, 시간 벌기 등이다.

열째,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음을 표출하는 감탄사 ‘참’도 담화표지로 쓰이는바, 이의 의미 기능은 정보 수정과 초점화이다.

본고에서는 ‘참’의 감탄사와 담화표지적 기능을 구별하여 살펴보았으나 ‘참’의 감탄사와 담화표지적 용법은 엄격히 구별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

며, 또한 감탄사와 담화표지는 부사와도 분명히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참'은 감탄사, 담화표지, 부사 간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감탄사 '참'과 담화표지 '참'은 부사에서 문법화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우원, 「담화표지 ‘참’과 어찌말 ‘참’의 비교 연구」, 『언어과학』7.1, 1998, pp.1-22.
- 구종남, 「간투사 ‘아니’의 의미 기능」, 『한국언어문학』39, 1997, pp.43-64.
- 김미선, 「감탄사와 부사의 경계에 대하여」, 『인문과학연구』27, 2010, pp.5-30.
- 김영철, 「우리말 담화표지 ‘참’ 고찰」, 『국어문학』43, 2007, pp.235-252.
- 오승신, 「국어 간투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이광호, 「‘흠-진쫄과 ‘거쫄’의 대립 관계」, 『언어과학』16.2, 2009, pp.42-58.
- 전영옥, 「한국어 담화표지의 특징 연구」, 『화법연구』4, 2002, pp.113-146.
- 조명원, 나익주 역, 『인지언어학이란 무엇인가?』, 한국문화사, 1997.
- Ameka, F., Interjections: The universal yet neglected part of speech, *Journal of Pragmatics* 18, 1992, pp.101~117.
- Barwise, Jon and John Perry, *Situations and Attitudes*, Cambridge, Mass: MIT Press, 1983.
- Bolinger, D., *Meaning and the Form*, London: Longmans, 1977.
- Briton, L. J., *Pragmatic Markers in English*, Mouton de Gruyter, 1996.
- Fraser, Bruce, *Pragmatic Markers*, *Pragmatics* 6, 1996, pp.167~190.
- Freedle, R. O, *An Approach to Discourse Markers*, *Journal of Pragmatics* 14, 1990.
- Grumpe, J, *Discourse Strateg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 Heine, Claudi, Hünemeyer, *Grammaticalization*, Chicago University Press, 1991.
- Hopper, P. J.,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Katz, J.J. and J.B. Langendeen, *Pragmatics and Presupposition*, *Language* 52.1, 1976.
- Levinson, S. C., *Pragma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 Schiffrin, D, *Discourse Mark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Traugott, E. C., *Pragmatic Strengthening and Grammaticalization*, *General Session and Parasession on Grammaticalization*, CLS, 1988. pp.13-15.

Abstract

A Study on Interjection/Discourse Marker 'Cham'

Koo, Jong-Nam

This paper has two purposes. The first one is to elucidate the meanings of 'cham(참)' which are used as interjection and discourse marker, and show how the meanings of these interjection and discourse marker can be explained by the meaning of adverb 'cham'. The second one is to argue that there are two kinds of interjection 'cham' which have different meanings, emotion expression('cham₁') and the expression of sudden occurrence of thought ('cham₂').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up like these.

(1) The interjection 'cham' should be divided into two. That is, cham is homonymous. (2) Emotion expression 'cham' can be used to expose all the feelings. (3) The basic meaning of interjection 'cham₁' is the direct expression of emotion which are felt truthfully in emotion-triggering situation. (4) 'Cham₂' has nothing to do with adverb 'cham'. It has its origin in interjection 'acha'(아차). (5) Discourse marker 'cham₃'(originated from 'cham₂' and adverb 'cham') drives its origin from interjection and adverb 'cham'. And the basic meaning of it is the expression of speaker's dim truthfulness. (6) The functions of discourse marker 'cham₁' are like these : the expression of speaker's unassertive attitude to his utterance, discourse strategy to maintain speaker's utterance, and strategy to obtain time during speaker's utterance. (7) 'Cham₂' also can be used as discourse marker and its functions in discourse are correcting information and focusing.

Key Word : interjection, discourse marker, emotion expression, discourse strategy, unassertive attitude, correcting information, focusing.

구종남

소속 :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소 : (561-75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로 567

전북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전화번호 : (063) 270-3171

전자우편 : jnkoo@chonbuk.ac.kr

이 논문은 2015년 2월 28일 투고되어
2015년 3월 3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5년 4월 10일 게재 확정됨.